

- ▶ 예수는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 자신이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한다.
- ▶ 예수가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몸소 하는 것이며, 이는 자신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에게 달려가는 저 아버지와 하나님이 동일시 되는 이유다.
- ▶ 이러한 신적이며 인간적인 용서와 나눔의 실천이 ‘작은 이’(마 18:4)와 ‘부러진 갈대’와 같은 이(마 12:20)와 짓누르는 고통으로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‘보잘것없는 이’가 된 사람(마 25:40)을 창조하듯이 일으켜 세우신다.